



제주 바다의 멋, 윈드서핑 16일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해변에서 서퍼들이 높은 파도와 바람을 이용해 윈드서핑을 즐기고있다.

이상국기자

# 태풍 나리·차바 피해 아직 생생한데...

### 복개구조물 철거 한천 재해지구 정비사업 제자리 300억 투입 2023년까지 계획했지만 착공도 못해

집중 호우시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제주시 원도심을 흐르는 한천 자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지난 2007년 9월 태풍 나리와 2016년 태풍 차바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복개구조물 철거 필요성이 제기돼 추진되는 사업이다. 시는 이에따라 지난 2018년 5월 복개구조물 철거와 생태하천 복원을 골자로 한 한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9월에는 유실위험

가' 등급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했다.

이후 지난해부터 2023년까지 사업비 300억원(국비 150억·지방비 150억)을 투입, 용담1동(2581·4번지 일원) 일원 한천복개구간 구조물을 철거할 계획이다. 복개철거 및 하상정리 1만7800㎡, 반복개 구조물 344m, 교량 재가설 3개소를 추진하게 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현재의 복개구간 하부지반 구조물(기둥)로 인한 통수단면 부족 등으로 하천 범람과 피해예방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주민설명회 개최가 어려운데다, 복개구조물 철거에 따른 기존 주차공간·도로 시설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주민 이해관계 조정 등 진전이 안되면서 공사발주를 못하는 상태다.

시는 지난 3월 31일 1차 주민설명회에 이어 지난달 2차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우려에 따라 열리지 못했다. 이로 인해 지난 해 5월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에 착수하고 이달중으로 실시계획을 완료한 후 내달부터 철거공사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수개월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에 따르면 기존 4차선 도로와

복개구조물 등은 기본적으로 철거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사업 자체는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도 도로와 주차장 등이 없어지는 데 대해 주민편의시설은 최소한 배려해 줘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어 앞으로 이해관계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주민설명회 개최가 힘들고 도로·주차장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결정이 안돼서 실시계획이 진행이 안된다"며 "이달중 주민설명회를 열고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윤형기자 yhleee@ihalla.com

# "2028년 대입개편 대안 모델로 IB 검토"

### 도교육청 'IB프로그램' 토론

2028년 대입 개편의 대안 모델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IB(국제 바칼로레아) 교육프로그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제주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원격교육시스템 '셀비온'을 활용해 열린 월례기획조정회의에서 '유망의 교육과정 IB교육프로그램 평가의 실제'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이석문 교육감과 본청 실국과장을 비롯해 직원, 교원들이 실시간으로 참석했다.

IB 후보학교로 내년 본격적인 IB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앞두고 있는 표선고의 임영구 교장은 이날 'IB 교육프로그램의 평가와 실제' 주제 발표에서 "2028년 대입 개편의 대안 모델로 IB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 교장은 "2024년에 증3이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입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IB 교육은 학생들에게 고차원적 사고를 심어주기 위해 지식 주입 교육을 벗어나 개념 이해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이 갖춰야 할 미래 역량 등을 고려할 때 논·서술형 평가 방식의 도입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논·서술형 수능의 대안 모델로 IB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IB학교의 성공적 정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교사들은 "IB 교육을 안정하기 위해서는 IB에 대한 이해와 교사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학생·학부모들은 IB가 우리나라 대입·진학 현실과 맞는지 궁금해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 부친 폭행 공무원 현행범 체포

제주시 전 간부가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데 이어 이번엔 부친을 폭행한 제주시 소속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6일 제주시 소속 공무원 A씨를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4시1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주택에서 부친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폭행을 행사했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밝힐 수 없

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상습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시 국장(4급 서기관) B씨가 1심(제주지법)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안동우 제주시장은 B씨의 파면 처분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제주시 소속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입장에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제주시민에게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제주도에서도 지난달 10일부터 31일까지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진행했으며, 감찰 결과는 이달 말쯤 발표될 예정이다.

송은범기자

# 제주공항 항공수송 실적 '회복세'

### 1~5월 이용객 949만명...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 늘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었던 제주공항의 항공수송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여름철 성수기인 7월과 8월에도 해외로 빠져나가지 못한 내국인 관광객이 대거 제주로 입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름철 제주공항 수송실적은 지속 늘어날 전망이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1월부터 5월까지 제주국제공항 항공수송 실적에 따르면 이 기간 제주공

공 이용객 수는 총 949만2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752만6000여명) 대비 26% 가량 증가한 수치다.

하루 평균으로 보면 항공기는 404편이 오르내렸고, 공급석은 7만6000석 가운데 6만2000여명이 이용해 탑승률은 82.0%를 기록했다. 공급석인 경우 전년 동기대비 15.5%, 탑승률은 6.9% 증가한 수치로,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일부 항공사는 제주 노선

확대와 증편이 계획돼 있어 제주공항 항공수송 실적은 지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주공항 항공수송 실적은 대부분 국내선 이용객들로 발생한 것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사실상 운항이 중단된 국제선의 항공수송 실적은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선·국제선 별로 보면 1~5월 국내선 이용객 수는 949만명을 기록

했지만, 국제선 이용객은 1700여명에 불과했다. 올해 국제선은 지난달까지 38편이 운항됐으며, 공급석 6900석에 탑승률은 24.4%를 보였다. 전년 대비 운항 횟수는(2100여편) 98.2%, 탑승률(68.8%)은 44.4%, 이용객(27만4000명)은 99.4% 각각 감소한 것으로 지난해 2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방역 일환으로 무사증입국 제도가 중단된 이후 국제선 운항 실적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밖에 항공사별 운송률은 제주항공 20.5%, 진에어 16.4%, 티웨이 16.3%, 아시아나 16.0%, 대한항공 14.4%, 에어서울 4.5%, 기타 0.6% 순으로 집계됐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 "한림농협 접대 의혹 조사" 정의당·진보당 도당 논평

농협중앙회 감사반 소속 5명이 수감 기관인 한림농협으로부터 감사 기간에 술과 음식 등 접대를 받고 방역 수칙을 어겼다는 의혹에 대해 16일 정의당과 진보당이 잇따라 논평을 내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감사기간 동안 피감사기관이 감사기관 관계자들에게 식사 및 주류를 제공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도덕적 해이를 넘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제주도당도 같은날 발표한 논평에서 "이번 사건의 책임은 농협중앙회 회장과 농협 예산을 부당한 접대에 사용한 한림농협 조합장에게 있다"면서 "정부는 감사권을 남용해 농협중앙회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조치와 함께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고, 한림농협 조합장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상민기자

## "언제든지 가시려 드립니다"

# 여향의 고장 광주

**후원** 제주광역시 제주관광협회

1박2일 자유여행+렌트카 / 특급 비즈니스 호텔 2인1실

₩149,000~ (4인 기준)

₩159,000~ (3인 기준)

₩169,000~ (2인 기준)

※ 단체는 별도문의

**(추천일정)** ※ 요일에 따라 항공출발 시간이 조금은 다를수가 있습니다

**1일** 제주공항출발 → 광주공항도착 → 공항에서 렌트카 인수 후 출발 → 전일빌딩 245 → 양림동역사문화마을&팽귤마을 → 광주공원마루(국악공연관람) → 호텔체크인 후 자유시간

**2일** 호텔朝食 후 체크아웃 → 광주호수생태원 → 가시문학(소쇄원&환벽당) → 광주공항으로 이동 → 항공수속 후 출발 → 제주공항도착

- 호텔에서 일회용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개인위생용품은 본인지참입니다.  
- 주말&연휴기간: 별도 요금적용됩니다.

**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TAX포함, 호텔(2인1실), 호텔朝食1회, 관광지 입장료, 렌트카(소나타급), 여행자보험

**불포함사항** : 중식&석식, 룸싱글차지, 기타개인비

무등산

(주)퍼시픽투어 T. 747-8099

(주)굿모닝제주투어 T. 723-3350

아 주 관 광 T. 757-7771